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개개인 갈등 '민족' 이라는 이상으로 승화

우릴 꼭꼭 씹어 먹어

미주알고주알: "미주알고주알 알아서 뭐하려고?" 라고 할 때 '미주알고주알'이 뭐지 하고 궁금해진 적 없나?

미주알은 항문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 부분입니다. 남의 숨은 일까지 속속 캐려는 것이 마치 속 창자까지 살펴보려는 것 같아 '미주알고주알' 캐묻는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주알'은 '미주알'과 운운 맞추기 위하여 아무 뜻도 없이 덧붙인 말이란 것 기억해두세요.

살살이: "잠바 주머니에 분명히 오렌지 원을 넣어 두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가느라 지용이한테 잠바를 맡겼는데 갔다 와서 보니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친구를 의심하면 되나? 살살이 찾아봤어?" "이런, 주머니에 구멍이 났네" 잠바의 삶을 만져보시거나 훑어준 구멍 틈으로 손을 넣어 힘겹게 오렌지원짜리 지폐를 꺼내셨습니다. 살은 두 다리의 사이나 두 팔 사이 틈을 가리킵니다. '살살이'는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석구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건달: 건달바는 음악의 신으로 불려서 말하는 신인데, 술과 고기를 먹고 향기만 맡으며 허공을 날아다녔대요. 인도에서는 건달바를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악사나 배우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노래나 배우 노릇하는 광대들을 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달바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처할 일이 없이 먹고 노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어요. 안명욱(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교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이광수작 '무정'

춘원 이광수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장편소설 <무정>은 한국 최초의 현대 소설로 평가받는 소설이지요. 고전소설과 신소설에서 엮여온 구시대의 인간상이 이 작품 속에서는 근대적인 인간상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섬세한 심리 묘사, 개성적인 인물의 창조, 구어체 사용 등으로 우리 소설 문학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요. 청춘 남녀의 사랑을 줄기로 하면서도 근대적인 의식과 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민족 계몽 소설로 읽히기도 해요. 당시 개화기 한국인들의 갈등을 '나'라는 개인보다는 '민족'이라는 이상으로 승화시키으로써 민족 계몽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시킨 거지요.

경성 학교 영어 교사 형식이 김 장로의 딸 선형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온 날, 뭇방에도 옛 스승의 딸인 영채가 찾아온다. 어릴 적에 정혼한 사이나 다름없던 영채한테서 스승 박 진사가 억울하게 죽어 갔다고, 그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 사연을 듣는다. 영채가 돌아간 뒤, 형식은 영채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한다. 다음 날 형식은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학감 배명식과 학생들의 대립을 중재하다가 배명식이 영채를 탐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를 찾으러 갔다가 배명식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영채를 구해 낸다. 이튿날 영채는 유서를 남기고 떠나고, 놀란 형식이 영채를 뒤쫓아 가지만 찾지 못했다. 영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형식은 배 학감의 모함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김 장로의 딸 선형과 약혼한다. 한편 영채는 자살하려 가던 길에 활달한 신여성 병옥을 만나 마음을 바꾸게 된다. 병옥은 영채가 형식을 사모한다는 생각이 구도덕의 환각임을 역설하고, 영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 병옥의 집에서 날아간 새

한국 최초의 현대 소설로 평가 근대적 의식 나타낸 계몽 소설

로운 생활에 눈을 뜬 영채는 결국 병옥과 함께 유학을 가기로 한다. 형식과 선형, 영채와 병옥은 유학길에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된다. 서로 갈등을 겪던 이들은 수해가 난 삼랑진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수재민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어 상황을 이룬다. 속소로 돌아온 이들은 형식에 이끌려 외국에 가서 열심히 학문을 배워서 조선 민족을 계몽하고 교육할 것을 각오하고 앞날을 설계한다.

<무정>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인물은 역시 형식이지요. 옛 스승의 딸로 어릴 적 정혼한 영채와, 개화한 기독교인 김 장로의 딸인 선형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던 형식은, 여러 차례 갈등을 느끼지만 마침내 선형과 약혼을 하게 이르렀어요. '자유연애'라는, 당대 사회의 풍속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고 있어요. 이는 근대적 의식 또는 자아의 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영채가 보여주는 구시대 도덕을 버리고 선형을 택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 소설을 '현대 소설의 효시'로 끌어올리게 만든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무정>에서처럼 교육과 계몽에 의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나요? 수재민을 위한 음악회를 마치고 여관에 돌아와서 선형과 영채, 병옥에게 조선을 위해 각자 할 일을 정하자고 의지는 형식의 모습은 선각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지요.

이 작품은 봉건 도덕의식을 가진 박영채와 근대적인 인간적인 이형식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과도기적 인물을 설정하여 상호 갈등을 전개시킴으로서 전환기의 시대상과 가치관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표면적으로는 근대 문명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전통 가치와 근대 가치의 충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요. 전통적 여성 영채, 신여성 선형,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형식의 삼각관계는 단순한 애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가치와 근대 가치의 대립이 함축되어 있지요. 이들의 갈등은 수재민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계기로 민족 현실에 눈뜨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해소되고 있어요.

안명욱(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교사)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당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청소녀 성폭력, 어느 정도인가?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보니 어렸을 때 성희롱과 같은 것을 당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녀 성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ID:공공공공)

응답 학생의 34.4% 경험 '심각하죠'

한국청소년 상담원의 1996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4.4%였으며, 그 중 '성적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81.6%였으며, '성폭행' '강간미수' '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응답자의 18.4%로 이는 전체 응답자의 6.7%에 달했습니다.

심각한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26.2%였으며, 다음은 '선배나 친구'가 22.3%, 또한 '아버지'라고 응답한 경우도 18.0%나 되었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31%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상의' '부모님과 상의' '상담소에서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60% 정도가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무 대처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성폭력 경험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상담기관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담원 선생님과 상담할 때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하니 걱정 말고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작성:우선우 · 접수:소영현)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이 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 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 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 염주는 인도에서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컫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 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요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 사용할 예술품으로 불리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성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 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 번창을 위한 100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리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

자동차 사고 예방과 닥쳐올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용 금강저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경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가격 38,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달수 있다. 전화:(02)741-4477

2007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재화막는 삼고금강저!

삼재, 즉 삼해, 나쁜삼재 각 1년씩 3년동안 수. 화. 풍으로 큰화를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불가에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의식으로 매년 입춘날 대부분 사찰에서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드린다. 삼재에는 나이에 따라 일반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다. 삼재가 든 사람들 중에는 하는일 마다 일이 안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재물손실이 계속되고 뜻하지 않는 관재수로 별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고통이 오지만 삼재라 하여 삼재가 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하여 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 중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삼재를 완벽하게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환란을 모면하게 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도산(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닥쳐올 화를 미리 막아주며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가로 5cm 폭 2cm로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된다.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35,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정해진 새지갑으로 사업성공! 평생부자!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고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 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스럽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에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하신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무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당산으로 큰 돈을 받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지 않게 하는 팔길상보병과판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손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신분의 명명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